

한전·KT 나주서 손잡고 “에너지 신산업 선도”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 4대 협력사업 공동 추진

광주·전남 미래 먹거리 선도 ‘빛가람 에너지밸리’ 협력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빛가람도시)에 동지를 틈 한국전력이 KT와 정보통신 및 에너지 기술 융복합을 통해 새 시장 개척에 나선다. 광주·전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도할 ‘빛가람 에너지밸리’ 조성에 도 협력하기로 했다.

두 회사는 먼저 광주·전남지역 1000여 가구에 LTE 통신방식을 활용한 지능형 전력계량 인프라(AMI) 실증 시범사업을 국내 최초로 시행할 계획이다.

조환익 한전 사장과 황창규 KT 회장은 9일 나주 빛가람도시 한국전력 신사옥에서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협력사업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에 관한 발표회’를 열고, ▲LTE 활용 지능형 전력계량 인프라 구축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전력+통신 빅데이터 융합 연구개발 ▲글로벌 마이크로 에너지그리드 등을 4대 협력사업으로 선정,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 체결한 스마트그리드 협력 양해각서에 바탕한 내용으로, 7개월간의 협력방안 모색을 통해 나왔다.

두 회사는 우선 내년 5월까지 LTE 기반의 지능형 AMI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국내 최초로 상용화한다는 방침이다. LTE 모뎀과 지능형계량기를 가정에 설치한 뒤 검침 내용을 무선으로 한전에 전달하는 방식인데, 시범사업은 광주·전남 및 서울의 2000가구가 대상이다. 실시간 원격검침으로 전력사용량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양측은 2017년까지 1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AMI 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그리드
기존의 전력망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해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이다.

또 국내 관련 기업들과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전기차 충전 사업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한전이 사업을 총괄하고 KT는 서비스 운영 등을 맡는다. 320억 여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3년간 제주도 전역과 전국 공공기관에 5500여개의 충전 인프라를 구축키로 했다. 국내 대표 전기차로 자리매김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쏘울EV 판매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전력+통신 빅데이터’를 분석, 제공해 새로운 서비스시장을 이끌어내는 한편, 국가적 에너지 활용 최적화 및 효율화에도 힘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국내 기업과 협력해 에너지 자립을 돕는 것이다. 아울러 한전과 KT는 한전에서 추진 중인 광주·전남권 ‘빛가람 에너지밸리(Energy Valley)’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역 혁신클러스터 정책과 연계한 전력과 정보통신기술 융합 R&D협력을 선도하겠다고



9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한국전력 본사 사옥에서 조환익 한전 사장(왼쪽)과 황창규 KT 회장이 국내 대표 전기차인 기아차 쏘울EV를 충전하고 있다. <한국전력 제공>



는 것이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의 신재생 에너지 확대 및 도서지역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등 지역사회 공동발전을 이끌어 공

공기관 지방이전 모범사례로 확립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이번 발표는 한전

이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한 뒤, 전력분야의 글로벌 나주시대를 여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며 “국내 에너지밸리의 토대를 구축해 해외 스마트그리드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황창규 KT 회장은 “한전과의 4대 통신·전력 융합사업을 중심으로 KT 스마트 에너지 사업을 본격 추진해 국내외에서 가시적인 사업성과를 조기 달성할 것”이라며 “국가 에너지 해결과 동시에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문화전당 내년 개관 ‘특별법’에 또 막히나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의 내년 9월 개관 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의원들간 견해차로

광신대학교

2015년 학부 정시모집
12월 19일(금)~24일(수)
문의: 062)605-111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법률안’(특별법)의 법안심사가 보류된 데다 12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안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8일 박해자 의원실에 따르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주체를 정하는 내용으로 이뤄진 특별법안이 지난 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심사보류돼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특별법안은 지난해 발의된 정부안과 박해자 의원이 마련한

의원 입법안 등 사실상 일정 부분 상충하는 2개 법안이다. 문화부가 제출한 안은 문화전당 운영을 아시아문화개발원(특수법인)에 위탁하자는 내용이다. 박 의원의 안은 문화전당의 위상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부 소속기구가 운영을 맡되, 일부 기능만을 법인에 위탁하자는 지역사회의 염원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안소위에서 여당 의원들이 문화전당을 국가소속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법안의 처

리가 임시회로 넘겨졌다.

법안 처리 지연은 문화전당 개관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문화전당 운영주체가 정해지지 않아 필수인력(423명)을 뽑지 못함에 따라 연쇄적으로 개관 준비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관계자도 “특별법 개정이 연내에 이뤄지지 않으면 문화전당을 내년 9월에 개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내년 임시국회 개최를 가능할 수 없어 법안 처리가 내년 상반기까지 미

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개관을 불과 5개월 여 남겨두고 문화전당 운영 인력을 뽑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성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은 “문화전당의 성공적인 개관을 위해서는 법안의 연내통과 밖에는 대안이 없는 상태”라며 “국회는 물론 광주지역 사회에서도 법률안 개정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법안심사 보류…운영주체 못 정해

15일 개최 임시국회서 통과시켜야

“아이폰 AS 불공정”

광주 30대가 애플 이겼다

30대 국내 아이폰 사용자가 수리를 맡긴 자신의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는 애플의 ‘애프터 서비스(AS)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평가속에 업계에서는 국내 소비자의 목소리가 글로벌 기업 애플의 AS 방침을 변경하는 기폭제가 될 지 주목하고 있다.

광주지법 민사 21 단독 양동화 판사는 9일 아이폰 사용자 오원국(30)씨가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오씨는 이번 승소 판결로 휴대폰 구입비 102만7000원에 정신적 피해, 사진 등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를 돌려받지 못한 데 따른 손해배상금 50만원을 더한 152만7000원을 받게 됐다.

오씨는 지난 2012년 12월 ‘아이폰 5’를 구매해 뒤 사용해오다 다음해 11월 배터리 이상 증상으로 수리를 맡겼다. 하지만 수리 업체 측은 “수리가 어려우니 34만원을 내고 ‘리퍼폰’을 받아가라”고 답변했다.

리퍼폰은 중고부품을 일부 활용해 만든 사실상 중고제품. 오씨는 추가 비용에 부담을 느껴 기존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정책상 돌려줄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그는 청와대 문고, 한국소비자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법원 조정절차를 거쳤지만 무산됐다.

경실련도 애플의 AS 방침대로라면 일단 수리를 맡길 경우 수리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취소할 수 없어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입장에서 불공정하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반영,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를 청구한 바 있다.

오씨는 “항소, 상고로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끝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두환 범종’ 소유권 누구에 ▶2면

송년회 제대로 즐기 ▶18면

24면 발행·호보 최대부수

雪花秀

주름줄기에 맞서는 강력한 힘이
깊어지는 주름을 탄력으로 차올린다

피부 탄성이 무너지면 잔주름이 깊고 넓게 뻗어 나가는 주름줄기 현상이 시작됩니다.
깊어지는 주름줄기를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설화수 자여진에센스 -
인상 성분을 캡슐화한 진세나스피어™가 피부 본연의 탄성을 강화시켜
힘있게 치오르는 매끄럽고 탄력 있는 피부로 가꿔줍니다.
더욱 강력해진 인티에이징 효과로, 주름을 이기는 피부의 힘을 경험하세요

근본에서 찾은 더 좋은 대답, 설화수 자여진에센스

Sulwhasoo

·유명백화점이나 약국에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kr · 페이스북: www.facebook.com/sulwhasoo.kr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